

zoom up

꽃꽂하게 버티는 상처받은 나무



오 판 용 < 본회사사 >

사람이나 풍설해(風雪害)로 인한 나무의 상처를 보면 누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들을 세심히 관찰해보면 별난 수난을 받고 있는 안타

까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월말 치악산 구룡사를 찾았을 때였다. 원통문(圓通門)으로 들어가는 오른편에 빈약한 숲이 있다. 고찰(古刹)의 경내 수림치곤



노송이나 거목의 수효가 많지 않아 의아스러울 정도다. 시간이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붙인 나무의 「이름표」를 구경하며 나무의 생육상태를 살피던 중 이상한 낙엽활엽수 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 나무는 토양상태가 별로 기름진 것도 없이 길가에 서있는 30년생쯤된 나무인데 아랫둥지 사방으로 동공(洞孔)이 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신기할 정도다. 사방으로 길죽하게 구멍이 나 보목(補木) 없이는 계속되는 풍우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애처롭기만 했다. 약 30cm 정도 사면으로 흙을 돋우면 어떨까? 시멘트나 붉은 흙을 발라 동공을 모조리 봉쇄해 버리면 어떨까? 혼자 궁리하다 돌아왔다.

멀지 않아 장마와 바람부는 계절이 닥아올 것인데 이 나무 걱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이런 나무가 많을 것 같다.

나는 사계의 태두이신 임경빈(任慶彬 : 전서울대농대교수·나무백과저자) 박사께 진단을 요청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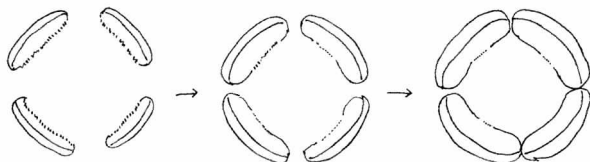
다. 현재 산림청임목육종연구소에서 바쁜 연구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는 원로 임학자인 임박사께서는 다음과 같은 장문의 서신을 보내 주었는데 나무를 사랑하는 회원들과 함께 읽고 기억해 두고 싶다. 다음은 서신 내용이다.

『(전략) 사진과 설명을 보니 수종을 단정할 수 없으나 낙엽활엽수종으로 아직 자람이 왕성하고 생활생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나무가 오래 살아가다 보면 별난 피해를 받게됩니다. 눈이 쌓이면 산쥐·들쥐·토끼·노루 등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아랫쪽 껍질을 갉아먹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어릴 때 뿌리목줄기 부분은 동상을 받기 쉽고 여름에는 열해(熱害·皮燒로 흔히 말하는 것)를 받아 수피가 죽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으면 그곳부터 병균(부후균)이 으레히 침입하게 되고 결국 줄기 중심부의 목재가 썩게 됩니다.

이 나무는 해를 받을 때 줄기를 돌아가면서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처 자기치유의 과정을 보이는 모식도〉



줄기의 가운데가 비어있어도 바람에 대한 저항력은 강하다.
중간이 비어 있는 대나무는 바람에 꺾이는 일이 거의 없다.

듯 합니다. 나무는 병균과 싸워서 이기고저 하고 각종 화학성분을 내어 병균을 이겨내게 됩니다. 나무의 생리가 약할 때에는 지게 되겠지요. 이 나무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겨낸 것 같습니다. 나무를 더 도와주겠다면 병환부를 소독하고 죽은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소독해서 병균을 죽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시멘트 등의 충전재료로 내부를 채워주면 바람에 대한 저항력도 어느 정도는 증강되고 병균의 재침입도 저지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와같이 하는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죽게되고 또 나무를 살려야 하겠다면 처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아 상처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면(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두어도 살아남은 부분이 힘을 얻어 상처받은 공간을 메꾸어 나갈 것으로 압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디 상처가 있었든가 하는 상태로 되돌아가서 건강한 나무가 되리라고 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이 없는 한 이 나무는 넘어지는 일이 없고 세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상처를 가볍게 긁어내고 70%알콜이나 살균제를 듬뿍 쳐주면 좋을 것이고 이때에 주변의 흙까지 소독이 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해로운 균은 땅 속에서도 지내기 때문입니다. (후략)』 ▲▲